

# 전남 농어촌, 삶의 질 높이는 의료·교육·문화 여건 최하위

### KREI, 농어촌 삶의 질 실태조사...4대 전략 점수 전국 평균 못 미쳐 경제·일자리 전국 '꼴찌'...교육·문화, 보건·복지 모든 항목 아쉬움

전남 농어촌 지역민의 지역 정주 만족도는 전국 상위권을 기록한 반면 삶의 질을 높여주는 '보건·복지·정주기반·교육·문화·경제·일자리' 등 4대 전략의 세부 항목 점수는 모두 전국 최하위권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남은 특히 경제·일자리 만족도 점수가 전국에서 가장 낮았으며, 인구 고령화에 따라 의료·인프라 등 농촌 주민들이 삶의 질 향상을 위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보건·복지 항목마저도 전국 최하위에 머무른 것으로 드러나 정주 여건 개선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KREI)은 1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4 농어촌 삶의 질 실태와 주민 정주 만족도 조사'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번 조사는 정부가 내세운 '제4차 삶의 질 기본계획' 4대 전략인 '보건·복지', '교육·문화', '정주기반', '경제·일자리'를 중심으로 도농간 만족도를 분석한 것이다.

보고서에 따르면 전남지역 4대 전략 만족도는 6.2점으로, 전국 평균(5.7점)보다 0.5점 높았다.

전남은 부산(6.8점)과 울산(6.3점)에 이어 대구, 인천과 함께 전국 공동 3위에 올랐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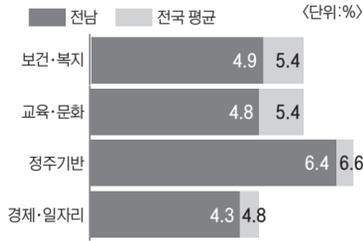
반면 전남지역은 4대 전략 세부 항목 점수에서는 모두 전국 최하위권에 머물렀다.

4대 전략별 점수를 보면 지난해 전남 농어촌 주민이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 전략에서 가장 부족하다고 여긴 것은 '경제·일자리' 전략이었다. 전남의 경제·일자리 항목은 4.3점으로 읍·면 지역이 있는 전국 14개 시도 가운데 제주와 함께 가장 낮은 점수를 기록했다. 이는 전국 평균(4.8점)보다 0.5점 낮은 수준이다. 이어 전북·충북·강원(4.4점), 울산·세종(4.8점), 경남(4.9점), 대구·충남(5.1점) 등의 순이었다.

전남은 '교육·문화' 항목도 4.8점으로 경북(4.7점)에 이어 전국에서 두 번째로 낮았으며, 이는 전국 평균(5.4점) 대비 0.6점이나 낮은 수치였다. 그나마 '정주기반' 전략이 6.4점을 받았으나 14개 시도 중 6번째로 낮은 수준으로, 역시 전국 평균(6.6점)에도 못 미쳤다.

특히 전남은 농촌 주민의 삶의 질을 좌우하는 핵

#### ■전남 농어촌 삶의 질 정책전략 만족도



심 전략인 보건·복지 분야에서조차 전국 최하위 수준인 4.9점에 머무른 것으로 나타나 전남도의 도민 복지정책에 대한 뼈아픈 성찰이 요구된다는 지적이 나온다. 점수가 가장 높았던 부산(6.9점)과는 2점이나 차이가 났고, 지역 정주 만족도에서 동점을 기록했던 대구(6.2점)·인천(6.0점)과도 1.1~1.3점 차이를 보였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부산, 대구, 인천 등 광역시에 속한 농어촌 지역의 경우 정주 만족도와 별개로 인근 대도시의 의료시설 등 인프라를 공유할 가능성이 높아 타 지역보다 점수가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 aT, 국산 밀 산업 활성화 나선다

### 국산 밀 전문생산단지 설명회 개최...육성계획 등 공유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는 "최근 나주시 빛가람동에서 농식품부와 함께 '2025년 국산 밀 전문생산단지 설명회'를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사진>

이번 설명회는 국산 밀 정부비축 사업의 주요 내용 및 정책 방향 공유 및 국산 밀 산업 활성화를 위해 마련됐으며, 전국 103개 국산 밀 전문생산단지와 컨설팅기관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여했다.

설명회는 벼 모내기 및 밀 수확이 집중되는 농번기와 겹치는 점을 고려해 온·오프라인 병행 방식으로 진행됐다. 설명회에서는 국산 밀 산업 육성계획, 정부비축 추진 절차와 단계별 유의사항, 국산 밀 품질관리 기준 연구 결과 등을 공유했다.

이날 공유된 국산 밀 정부비축 사업은 올해 2만 3000 t 규모로 추진되며, 밀 전문생산단지를 대상

으로 우선 매입을 진행한다. 매입 시 제빵용, 제면용 등 용도별로 품질기준을 세분화하고, 용도에 맞는 물량을 안정적으로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특히 올해는 기존 국산 밀 매입품종인 새금강, 금강, 백강 외에도 '황금밀' 품종을 추가해 각 농가들의 선택 폭을 넓히고 aT 품질안전부가 안전성 검사를 지원함으로써 농가들의 검사 비용 부담도 완화할 계획이다.

문인철 aT 수급이사는 "밀산업 육성법 제정 이후 지난 5년 간 국산 밀 산업은 2차 기본계획을 수립하는 등 중요한 전환점에 도달했다"며 "지속가능한 정부비축 체계를 마련해 밀 재배 농가의 소득을 높이고, 국산 밀 산업의 안정에 기여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 "농지 확보 이렇게"...농지은행 정책 수혜 청년 8명 이야기 풀어낸다

### 농어촌공사, 수기 공모전 시상

한국농어촌공사는 "지난 30일 한국농어촌공사 경기지역본부에서 '제2회 청년 농업인 농지은행 사업 참여 수기 공모전 시상식'을 개최했다"고 1일 밝혔다.

이번 수기 공모전은 지난 2월 20일부터 3월 25일 까지 한 달간 진행됐으며, 총 62건이 접수됐다. 심사위원단은 주제 적합성, 표현력 등을 종합적으로 심사해 최우수상 1점, 우수상 2점, 장려상 5점 등 총 8점의 수상작을 선정했다.

최우수상은 제주에서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을 지원받은 고해든 청년 농업인이 수상했다.

고씨는 높은 임차료와 경영비 부담에도 적극적인 농지은행 제도 활용을 통해 농지를 확보하고, 친환경 농업을 지속해 온 이야기를 수기에 담았다.

우수상은 조민재, 홍석중 청년 농업인이 각각 수상했다. 조씨는 스마트팜 교육을 수료한 뒤 초기 자본 부족으로 영농을 시작하지 못했지만, 공공임대용 농지를 통해 스마트팜 영농 창업의 기회를 마련한 이야기를, 홍씨는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을 통해 안정적인 조사료 수급을 위한 농지를 확보하고, 축산업 경영규모를 확대하는 등의 변화 과정에 대한 이야기를 잘 풀어냈다는 평가를 받았다.

이 밖에도 장려상을 수상한 김혜수, 한태웅, 김화복, 박은영, 엄기형 청년 농업인은 농지은행 지

원을 통해 안정적으로 농업에 정착해 성장한 경험을 수기로 전했다.

정인노 한국농어촌공사 부사장은 "이번 공모전을 통해 보여준 청년 농업인들의 모습은 영농 정착을 준비하는 다른 청년들에게도 도움이 될 수 있는 중요한 사례"라며 "공사는 우수 사례를 널리 알리고, 청년 농업인의 안정적인 영농 정착을 위한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공사는 농지은행을 통해 영농에 성공적으로 정착한 청년 농업인의 사례를 발굴·공유하기 위해 지난해부터 '농지은행사업 참여 수기 공모전'을 시행하고 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 올해도 뜨거운 바다...해수부, 고수온·적조 피해 예방

### 종합대책 시행...양식장 관리요령 책자 배포도

해양수산부(해수부)는 "여름철 고수온과 적조 현상 등으로 인한 양식수산물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2025년 고수온·적조 종합대책'을 수립·시행한다"고 1일 밝혔다.

국립수산과학원에 따르면 올해 여름 우리나라 연안 수온은 26도로 평년(25도)보다 1도 높은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예상대로 흘러갈 시 7월 말께 고수온 특보가 발표되고, 7월 말 이후 적조 주의보도 발표될 가능성이 있다.

이에 해수부는 고수온·적조가 본격적으로 발생

하기 전 피해 예방 체계를 강화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보다 3개월 빠른 지난 2월부터 액화산소 공급장치 등 대응 장비를 양식장에 조기 지원하고 있고, 지속적으로 현장 점검하고 있다. 또 고수온에 취약한 조피볼락, 납치, 전복 등 양식수산물에 대해 수급·가격 동향을 제공해 조기 출하를 유도하고, 상생 할인 행사를 통한 소비 촉진도 지원할 계획이다.

해수부는 비상대책본부를, 국립수산과학원과 지자체들은 현장대응반을 각각 구성해 대응 및 피

해복구 절차도 간소화했다.

해수부는 오는 6월 말까지 어업인과 지자체 관계자를 대상으로 권역별 현장 설명회를 열고, 고수온으로 인한 재해 상황에 대처하기 위한 교육·홍보 활동도 진행한다. 더불어 양식장 외국인 근로자를 위해 영어, 인도네시아어, 스리랑카어, 베트남어 등 외국어로 만들어진 '양식장 관리요령 책자'도 배포할 예정이다.

이 밖에 수산과학원 누리집을 통해 실시간으로 수온 정보를 제공하고, 500여 명으로 구성된 명예 감시원과 유해생물감시단 등을 활용해 예찰·신고 네트워크를 운영한다.

/장윤영 기자 zzang@

## 농촌진흥청, 여름철 농업재해대책 추진

### 고온성 해충 사전 방제·기상재해 알림서비스 지원 등

농촌진흥청은 "올 여름 풍수해·폭염 등 기후위기로 인한 농작물, 가축, 농업시설물 등의 피해에 대비해 농업재해대책을 수립·추진한다"고 1일 밝혔다.

농촌진흥청은 앞으로 기상재해 위기 경보가 발령되면 '영농종합상황실'을 '재해대책상황실'로 전환하고, 작물들의 주산기 기상 및 생육 상태를 분석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기술지원에 나선다.

또 품목별 농업인 단체, 시범 사업 농가, 작목반 등 농촌진흥청에 등록된 농업경영체에 농작물·농업시설물 관리 방법, 기상재해 대응 요령 등을 휴대전화 문자로 발송한다.

농촌진흥청은 특히 여름(6-8월) 기온이 평년보다 높고 강수량도 많을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고온기 농작물 관리 요령을 알리고, 필요한 농자

재 사전 준비 및 작물별 병해충 방제 정보 제공 등 고온성 해충 사전 방제 등도 집중 지원한다.

이 밖에도 '농업기상재해 조기경보서비스' 가입자에게는 기상재해 발생 시 현장에서 예방 조치를 할 수 있도록 알림 서비스도 지원한다.

채의석 농촌진흥청 재해대응과 과장은 "집중호우, 폭염 등으로 인한 농작물·가축, 농업시설물 손실을 줄이기 위해 기상재해 사전·사후 관리 요령을 전파하고 있다"며 "풍수해가 집중되는 지역에서는 사전점검과 기술지원을 한층 강화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농촌진흥청은 앞서 지난 29일 '여름철 농업기상 위험예측 협의회'를 열고 중장기 기상 전망과 과거 기상자료 및 풍수해 발생 현황 등을 토대로 농업재해대책을 점검했다.

/장윤영 기자 zzang@kwangju.co.kr

지금 당신이 서 있는 그곳이  
지구의 중심입니다.

오직 믿음으로 세상을 변화시킬  
주역은 바로 당신입니다.

사랑과 감사의 71년 믿음과 소망으로 100년  
[1954-2025]

For the Lord  
주님을 위하여

To the World  
세상을 향하여

www.kwangshin.ac.kr

학부 신학과 한국어교육학과 유아교육과 복지상담융합학부 음악학부  
대학원 신학대학원 일반대학원 상담치료대학원 사회복지대학원 국제대학원 음악대학원

입학문의 >>  
학 부 062)605-1114 대학원 062)605-1115

믿음이 있는 대학 · 믿음을 주는 대학

**광신대학교**  
KWANGSHIN UNIVERSITY  
61027 광주광역시 북구 양산택지소로 36